

당신의 불편함을 지지하며

2009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



2009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

yeoyeon.cyworld.com

2009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yeoyeon.cyworld.com

2009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2009

당신의 불편함을 지지하며
2009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

CONTENTS

- 02 • 성평등 자치규약을 이야기한다는 것
- 05 •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 10 • 성폭력 들여다보기
- 12 • 우리 안의 2차 피해를 마주보기
- 14 • 우리는 왜 피해자중심주의를 이야기할까요?
- 15 • 이성애중심주의
- 17 • 학내 사건 해결의 구체적인 절차

단위이야기

- 18 • 법대 이야기
- 20 • 사회학과 이야기 I
- 22 • 사회학과 이야기 II
- 24 • 문대 이야기
- 26 • 이과대 이야기
- 28 • 생과대 이야기
- 30 • 성폭력 피해 대처법
- 32 • 여연자연 소개



성평등 자치규약을 이야기한다는 것

2월, 생각만 해도 참 분주한 달입니다. 새로 공동체에 함께하게 될 사람들을 상상하고 공동체 문화를 어떻게 함께 즐길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설렘 속에 한 달이 훌쩍 지나가버리곤 합니다. 각 단과대와 과/반에서 어떻게 하면 새내기들이 보다 잘 우리 공동체 분위기에 흥겹게 적응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새록새록 피어나기도 하고, 지난 1년 간의 공동체 생활을 떠올리며 '이런 건 좀 불편했었는데'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평가를 토대로 새내기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성찰하고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노력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성평등 자치규약은 바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불편함 혹은 소외의 경험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성찰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들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만났을 때,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약속이 필요한지 이야기해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 자치규약은 '소통'이고, 또한 기존에 인지하지 못했던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소외와 배제를 성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약속을 만들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가면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고민을 끊임없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성평등 자치규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성폭력적인 상황들은 오랫동안 공동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예민한 개인들'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흔히 '성폭력'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상상하는 이미지들에 '부합하지 못하는' 비전형적인 경험은 피해의 경험으로 '인정'되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만들어져 온 가해자중심적인 이미지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불편함, 피해의 경험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설사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꺼낸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성폭력의 경험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가해자의 책임을 은폐하고 성폭력을 점점 더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켜, 공동체적인 고민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고민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동체 속에서 피해자는 성폭력으로부터 받게 되는 직접적인 고통에 더불어 수 많은 2차 가해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성평등 자치규약은 이렇게 누군가의 입을 막아왔던 공동체 문화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동체 안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성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가 스스로 말을 꺼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동체의 자율적인 약속입니다.

다. 성평등 자치규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숨겨져 왔던 공동체 내부의 배제와 차별, 그리고 이로부터 나타나는 폭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권력 관계 바라보기, 또 성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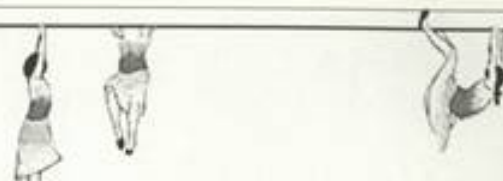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성찰한다는 것은 곧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존재하는 폭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관계를 성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남성중심성, 이성애중심성, 비장애중심성 등 중심과 주변을 나누는 가부장적 권력관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대학 문화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같은 과/반에서 활동하다가 연애하게 될 때 여학생이 얼마나 공동체에 참여하고 열심히 활동하고픈지와는 상관없이 '남학생의 여자친구'로만 여겨지는 상황과, 동성 간 관계에서 친밀한 모습을 볼 때 '너희들 사귀냐?'라는 말로 회화화하는 것은 성찰 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일상적인 성별 권력관계(남성중심성, 이성애중심성 등)가 만들어내는 폭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권력관계들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반만 그런 거 아냐, 뭐'

라는 말로 공동체 내에서의 성찰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끼면서 공동체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소외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공동체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민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과/반 문화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만들어내고 배제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은 어떤 권력관계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공동체에서의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는 누군가를 소외하지 않는 공간으로 차츰 차츰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계속 계속 이야기해나가기

공동체에는 각기 다른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평등 자치규약을 지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고 배제하지 않는 관계맺음'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 하나 고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겨운 충돌과 고





민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관계 맺고 있는 가부장적인 일상 속에서 어떤 부분이 배제와 차별을 만들어 내는지 들여다볼 때 우리는 보다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두와 함께 하는, 보다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공동체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부딪침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야기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때, 우리는 보다 활발한 소통을 만들어가며 공동체를 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고민은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

여성주의 평등!

관계 맺음에 여성주의를 더하는 것은, 서로를 타자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당연히' 이렇 것이라는 기대를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경험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당장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배척하지 않는 것이지요. 공감하고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 사람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쌓아가는 것이 서로를 은연중에 배제하지 않는 관계 맺음을 만들 것입니다. 일등과 이등을 가르는 것,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것,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을 획일화된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만들고, 각자 다른 이야기가 사라지도록 만들어 왜곡된 관계를 만들어 냅니다. 어떤 사람의 특성이 '남성성'이나 '여성성'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두고 판단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는 어느 한 개인이나 소모임 등 특정한 개인/단체에서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는 고민을 통해 공동체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평등 자치규약을 완결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구성원 모두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배제와 차별을 타파해나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해요!

따라서 이러한 뒤돌림들이 우리의 관계 맺음을 뒤엎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만들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지 않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관계 맺음을 다시 돌아보는 것 또한 여성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성주의적으로 공동체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는지를 고민한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하는지, 어떤 차별을 용인하고, 어떤 폭력을 간과하고 지나가는지를 들여다보며 공동체 문화를 구성하는 권력 관계를 고민해나가는 것을 포함하지요. 이런 고민에 소홀해지는 순간, 이 사회를 만들고 있는 이성애중심성, 남성중심성, 비장애중심성과 같은 사고를 답습하고 있는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by_ 2세대 총여학생회 일상, 올림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새터 반성폭력 내규 개정안

1. 목적

대학 사회는 기존의 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가부장제 사회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성별 권력관계, 이성애중심주의, 권위주의 등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사람들 간의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된다. 이는 대학 공동체에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재생산해내고 이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낸다.

대학 내 공동체의 이런 남성중심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찰은 여전히 매우 미약하다. 이는 새터, 대동제, 농활, 연고제 등 과/반/동아리의 활동과 생활 환경 안에서 수많은 성폭력을 양산해낸다. 대학 내 공동체의 성평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기제는 이러한 일상적인 성폭력이다. 따라서 본 자치규약은 성평등을 위한 실천방안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두었다.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공동체의 남성중심성을 해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평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성폭력의 예방과 사건 해결

2-1. 성폭력의 개념

광의의 성폭력(Gender-based Violence)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성적인 폭력(Sexual Violence)으로 알려진 성적인 신체접촉 및 언어폭력 뿐 아니라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상황의 조성, 특정 성의 취약한 부분을 노린 폭력까지 포함한다. 이는 사회 전반의 남성중심적인 일상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맞닿아있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은 사건 발생 시의 상황과 개별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갖게 되는 의미, 그리고 사건 해결의 방향에 따라 다른 명명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공동체 내에서 특정 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지적하는 성차별이나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성적 언행이나 성차별 유발 등으로 노동권, 교육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가 일어나는 상황을 법적으로 다루는 성희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명명은 성폭력 사건을 어떤 측면에서 해결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며, 이 때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과 피해 상황,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시각이다. 본 자치규약에서는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폭력을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

○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체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을 구체적인 사례로 짚어본다면 아래와 같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요구하는 언어 및 행위
- 상대방의 몸을 훑어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여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
- 놀이 자리에서 특정 성을 대상화하거나 배제하는 것

예 •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경우

• 술자리에서 자신의 성구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하는 언어 및 행위

예 • 여성의 옷차림이나 늦은 귀가가 성폭력을 유발한다고 말하는 경우

- 특정 성의 공간을 침해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

예 • 다른 성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엿보거나 침입한 경우

- 성적 불쾌감을 주는 육체적, 언어적 표현

예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AM

*FM: 소극적 중심으로 얼마나 큰 목소리와 몸짓으로
(Field Manual)
가게를 소극적 중심으로 얼마나 큰 목소리와 몸짓으로



-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행위 묘사
- 음담패설이나 왜곡된 성의식에 기반한 성적 농담 및 욕설
-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 특정 성에게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 예 • 공동의 공간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문구, 사진,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
-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성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 특정 성에게 술자리의 분위기를 위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
- 예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 앉아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
- 성적 고정관념 및 편견에 의한 차별적인 언행
- 예 •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일의 분업이 강요되는 경우
- 성적인 의미를 담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표현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예 • FM 및 각종 게임의 에로틱 버전을 요구하는 경우
- 남학생들을 왜곡된 여성의 모습으로 여장하게 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심사하는 경우

○ 2차 가해

2차 가해는 성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은폐시키는 경우
- 가해자와의 친분 등을 근거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건을 유포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경우

2-2. 이성애 중심주의

이성애중심주의란 이성애를 유일한 성정체성으로 간주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성애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사고 및 행동양식을 말한다. 이성애중심주의는 동성애혐오라는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며, 공동체 안에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기반이 된다. 본 자치규약에서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가하는 폭력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규약을 정한다. 각 학내 공동체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성애중심적 사고를 되돌아보고, 성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이성애중심주의 및 동성애혐오로 인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동성애 혐오에 기반하여 욕설 및 조롱이 담긴 발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이성애를 유일한 성정체성으로 간주하여 이성애중심적 커를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 새터 공연자리 등의 놀이자리에서 성소수자를 희화화하지 않는다.

2-3. 학번권력과 나이권력

여전히 공동체 내부에서 학번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번 및 나이 권력, 성별 권력을 통해 성폭력적인 놀이문화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학번 권력 및 나이 권력은 공동체 내부의 수평적인 관계 맺음을 물론이고 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학번 및 나이와 무관하게 본 자치규약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 학번의 높고 낮음을 이용해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 규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문제 제기된 경우 학번이나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이에 폭력적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

3. 적용 대상

본 자치규약은 학내의 과/반 학생회, 동아리, 학회, 소모임, 동문회 등 모든 자치 단위 공동체의 구성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4. 의무

- 학내 모든 공동체에서는 각종 행사 및 모임 자리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새터, 현장 활동, 대동제 등 학내 공동체 행사를 주최하는 학생회는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 교양을 이수해야 하고,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사건 접수 통로를 마련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새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자치규약에 대한 교양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본 자치규약을 논의하는 모임에서 제작한 자료집과 포스터를 배포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현장 활동과 대동제 기간 2주전부터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본 자치규약을 소속 단위의 학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5. 사건의 처리

- 학내에서 일어난 모든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反성폭력 학칙)에 의거하여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식적 처리나 비공식적 처리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한 경우에도 각 학생회는 사건을 지원하고 사건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논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
- 피해자가 학칙에 의거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학생회는 성폭력 상담실과 총여학생회의 자문을 받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 | | |
|-----------------------|-----------------------|
| - 제 정 : 2000. 2. 9 | - 2차 개정 : 2006. 1. 21 |
| - 1차 개정 : 2003. 1. 28 | - 3차 개정 : 2006. 9. 12 |

성 폭력 들여다보기

성폭력이 뭘까?

조선 시대의 '성폭력'은 '은장도'로 대변됩니다. 순결을 잃은 피해 여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결과 피해 여성들이 정조를 더럽힌 것,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여겨, 그녀들을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해를 묵인하고, 약자인 여성에게 분란의 책임을 뒤집어씌운 폭력적인 행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폭력'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강간'이나 '강제 추행'과 같은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성기 삽입'의 여부에 관심을 두어 심각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성폭력 행위'에 모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얼마나 나쁜지를 확인하고 처벌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 행위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관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존재를 지웁니다. 또한 가해자 한 명이 '특별하게 반사회적이기 때문'으로 책임을 돌려, 성폭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권력관계를 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 미성년에 대한 성년의 권

력, 학생에 대한 교수의 권력 등이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음을 은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주체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사건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과, 피해자가 원하는 과정을 밟아 치유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해결에 가까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을 '성적 자기 결정권'¹⁾의 침해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 나이 어린 사람들,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은 성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기는커녕 성을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거나 아예 무성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성폭력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사회적 약자의 성을 억압해온 기존의 권력관계에 문제제기해야 합니다.

이렇듯 성폭력의 개념은 사회마다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사회의 권력관계와 곳곳에 은폐된 성폭력을 가시화하고 반대하기 위하여, 성평등 자치규약은 '광의의 성폭력'²⁾ 개념으로 성폭력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별 권력에 의해 위협적인 상황을 쉽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을 이용하여 만든 폭력적인 상황을 성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 자체로 그 권력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도록 합니다. 그럴 때에, 누가 어떤 고통을 겪느냐보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까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었던, 다양한 불편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여성비하나 '당연한' 동성애혐오와 같은 일상 생활 속에서의 성폭력적

인 분위기를 자체를 문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성폭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여성주의적으로 볼까?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면, 어디까지가 성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아닌까?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성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객관적'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그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성 이성애자 비장애인인 해수엘리티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 또한 용인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담은 포르노그래피가 상품으로 유통되는 것, 데이트 성폭력은 '조금 더 격렬한' 이성애적 관계라고 보는 것 등으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상품'으로 통용되는 것, '법원의 판결에 합치하는 것'은 이 사회의 '객관성'이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성별이나, 성적채성,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성폭력, 즉 성에 기반한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은 '폭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원래 그런 것'으로 여겨지기 마련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성을 비하하는 농담을 했다고 칩시다. 그것을 불쾌하게 여긴 누군가가 문제제기하는 것에, '그런 것을 가지고 뭘 그러냐', '원래 저 사람 그런 농담 잘 하잖아', '그런 것까지 따지고 들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니', '뭘 그리 예민하게 굴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것을 사소한 일,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 따라서 '폭력'이라는 말로 설명하지 않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주의는 이러한 성에 기반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차별을 고민하며 평등한 관계맺음을 만들기를 지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권력관계를 찾아내야 합니다.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타인에게 고통을 만들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권력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것은 차별이 만들어낸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만들고 타자화하는 권력관계에 반대하고, 그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음을 폭로함으로써 해체하고자 시도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성폭력을 보았을 때, 우리는 '당연한'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를 무너뜨리고 '보이지 않는' 2차 가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어색'하고 '더 오래 많이 고민해야만 간신히 이해가 되는' 이유는, 그간 피해자/피지배자/약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때문입니다.

성에 기반한 권력관계가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이 사회에서, 성폭력은 도처에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과 성폭력을 재생산하도록 만드는 분위기, 그것을 유지하는 권력관계를 드러내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성폭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폭력을 다시 들여다보아 가부장제 사회가 상상하지 않는 다양한 피해를 발견하며 공동체를 성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by_ 2대 총여학생회 일상, 올림

1)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는 스스로에게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 자신의 성적인 행위와 다른 사람과의 성적이라고 느끼는 행위에 대한 통제권
2) 광의의 성폭력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를 한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성적인 폭력으로 알려진 성적인 신체접촉 및 언어폭력 뿐 아니라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상황의 조성, 특정 성의 취약한 부분을 노린 폭력까지 포함한다.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중)



우리 안의 2차 가해를 마주보기



2차 가해란 무엇일까요?

2차 가해란 성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성평등 자치규약 중) 구체적으로 성폭력 사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가해자와의 친분을 근거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건을 유폐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항상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2차 가해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차 가해가 왜 문제가 될까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우리는 왜곡된 통념에 따라 성폭력 사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거나 가해자중심적 시각으로 성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말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차 가해는 그것이 폭력이라고 인지되지도 못한 채,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실을 공론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답지 않다'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기존의 수동적이고 나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별권력으로 인한 폭력에서 살아남으려는 생존자를 기존의 단면적인 피해자상에 끼워 맞추다보면, '정말 저렇게 강한 여성에게 성폭력이 일어났을까?'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공동체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로 밝혀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말하나요? '평소 행실을 보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었나봐.'라며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혹은 피해자에게 왜 그때 어두운 곳에 있었느냐고, 왜 그런 짧은 치마를 입었느냐고 힐난하며 사건의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술자리의 안주거리로 성폭력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의 신변을 흘려버리기도 합니다.

2차 가해가 일어나면 피해자는 무수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성폭력 사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경우에,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기 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이 처신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를 물으며 자책하게 됩니다. 또한 원치 않는 방식으로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되거나, 피해자에게 '자기 처신도 못하는 여자'나 '남자 앞길 가로막은 여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그와 함께 피해자가 공동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2차 가해는 기존의 가부장적 편견을 더욱 확대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이를 통해 성별권력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버리고, 그런 권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깊이, 더 많이 2차 가해를 성찰해 나가야 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우리는 성폭력을 둘러싼 기존의 '상식'을 '문제'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배제한 채 형성되어 왔던 기존의 왜곡된 관념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피해자를 치유하고 성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첫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2차 가해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여성과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폭력을 다르게 인식하는 틀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by_2세대 총여학생회 앞상, 올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우리는 왜 피해자중심주의를 이야기할까요?



성폭력 사건은 쉽게 가해자의 언어로만 이야기 됩니다. 사건의 경위 자체가 가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그것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서술이 됩니다. 사건 처리의 중심이 되는 질문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는가?"나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가해자 중심성은 끊임없이 피해자의 경험들을 은폐하고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시선으로만 사건을 바라보고 사건 해결의 주체를 가해자로 상정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2차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주체를 가해자로 놓고 보면서, 성폭력 사건은 '강간 미수', '성추행'이라는 하나의 가해자가 행한 혹은 시도한 행위로 단순화하여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피해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사건은 다양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에 느낀 공포와 고통, 그리고 사건 후에 겪어야 했던 경험들과 계속해서 재구성해 나가는 기억들이 피해자에게 남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의 틀에 사건을 끼워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시선으로 재단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적당한' 수준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에 따라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대하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해자중심적인 사고로 이해했을 때, 피해자의 경험을 삭제한 채 쉽게 가해자의 처벌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부수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물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학대를 예로 들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해자와 같은 수업을 듣지 않도록

한쪽의 수업을 옮긴다거나, 가해자가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누군가의 말처럼, 가해자를 사회적으로나 공동체 안에서 매장시키기 위한 것이나 가해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가해자중심적인 사고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었으며 이겨내야 하는지, 누군가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생존권이 침해당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일에 대한 책임과 사건 해결에 대한 의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해자중심주의라는 것은 성폭력 사건 처리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남성중심적인 서술들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경험과 관점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는 피해자의 언어들과 경험들을 재생시키고, 가해자 언어가 유발하는 다양한 피해 사실들이 또 다른 폭력임을 문제제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와 억울함이라는 것 역시 가해자 중심의 언어일 뿐입니다. 피해자중심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입막음과 처벌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은폐하는지를 폭로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복잡한 감정과 상처들을 억울함이라는 획일화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하고 피해자의 경험들이 건강하게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by_2대 총여학생회 일상, 율림

이성애중심주의

"A(여성)야, 너 남친 있어?"

"난 동성애를 반대하진 않아. 근데 내 친구가 그러면 좀 거부감 들 거 같아."

위의 말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심심치 않게 듣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의 단어를 살짝 바꿔봅시다.

"A(여성)야, 너 여친 있어?"

"난 이성애를 반대하진 않아. 근데 내 친구가 그러면 좀 거부감 들 거 같아."

뭔가 어색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불편하신가요? 그것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말들이 이성애를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제하면서 이성애가 아닌 다른 방식의 관계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사고방식, 혹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기반한 행동 등을 우리는 이성애중심주의라고 일컫습니다.



이성애중심주의는 생물학적 성별 구분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다른 성별 간의 성적인 관계만을 정상으로 상정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생물학적 성별 범주에서 벗어난 젠더 정체성(트랜스젠더)이나 동성애, 양성애 등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타자화되고,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학내 역시 이성애중심주의가 만연해있고, 이 속에서 비이성애자들은 학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내 공동체에서 이성애를 끊임없이 권장하는 것 역시 '모두를' 이성애자로 상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이성애자들에 대한 비하, 혐오성 발언, 회화화, 그리고 강의실에서의 비이성애자에 대한 찬/반 토론 모두는 비이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 배제하고 차별하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폭력은 비이성애자들이 학내에서 비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이성애자들은 문제제기할 경우 자신의 비이성애 정체성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야만 하고 그것이 공동체에서의 배제, 무시, 혐오성 발언, 물리적 구타와 같은 폭력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이성애자는 아웃팅 개인의 성적정체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드러나게 되는 것 아웃팅은 비이성애자에 대한 호모포비아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당하지 않기 위해 침묵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비이성애 정체성이 또다시 비가시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성애중심주의는 한편으로 한 개인의 성적정체성만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는 착각을 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적정체성은 한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들

중 일부이지만, 이성애중심주의의 시선으로 그 개인을 바라볼 때 그/녀는 개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저 '동성애자', '양성애자'와 같은 하나의 범주로서 환원되어버립니다. 이성애중심주의 속에서 이성애자들은 '이성애자'라는 하나의 범주로 환원되지 않고 각자 다양한 개성을 가진 '개인'으로서 남아있는 것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우리가 매체를 통해 일상적으로 접하는 LGBTAI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sexual)무성애자, Intersexual(간성, 혹은 양쪽 성의 성기를 가진 사람), Questioning(자신의 성적정체성을 특별히 고정된 무엇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람)등의 비이성애 정체성을 일컫는 데에 관한 스테레오타입들—게이들은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저 사람은 게이이므로 패션 감각이 뛰어날 것이다와 같은—은 이렇듯 비이성애 정체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비이성애자에 대해 '오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비이성애 정체성에 대해 제멋대로 규정하고 그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를 무시한 채 그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뭉뚱그려버리는 것은 비이성애 정체성을 타자화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비이성애 정체성을 가진 개인에게 폭력적인 것입니다.

이성애중심주의는 또한 이성애 자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동시에 이성애 관계 속에서 특정한 여남의 성역할 규범을 강조하고 권장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야, 넌 왜 그렇게 여자/남자답지 못하냐?"라는 말처럼 특정 성역할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성별이분법 하에서 통상적인 여성, 남성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상인 여성', '정상인 남성'으로 규정되는 이미지를 획득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가 있음에도, 모든 이들의 정체성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구분하는 성별이분법 하에서는 이것이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별이분법은 또한 남성-주도적 역할, 여성-수동적 역할처럼 성역할을 구분하는 동시에 남성의 역할에 우위를 부여하는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이미 전제

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간 성별권력관계 역시 강화시킵니다. 이성애중심주의는 이러한 성별이분법을 근거로 하여 단순한 남성-여성 간의 연애관계가 아니라 주도적인 남성-수동적인 여성 간의 연애관계를 개인에게 끊임없이 권장하며, 이렇게 위계화된 성별 관계가 기존의 성별이분법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성애중심주의는 성별이분법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에게 특정 성역할을 강요하고 성별권력관계에 의한 억압을 강화하기 때문에, 비이성애자에 대한 폭력일 뿐만 아니라 이성애중심주의의 틀에서 벗어난 모든 이들에 대한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를 정상/비정상으로 위계화하여 '차별'하는 것은 그에 기반하여 정상이 비정상에게 가하는 끊임 없는 폭력을 발생시킵니다. 이성애중심주의의 이성애=정상, 비이성애=비정상의 이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내 공동체는 이성애중심주의가 공동체 내의 구성원에 대한 폭력일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평등 자치규약은 학내에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어 오히려 인지되지 못했던 이성애중심주의에 문제제기하고 모두가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성애중심주의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은 모두가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 '이성애중심적 사고를 되돌아보고, 성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이성애중심주의 및 동성애혐오로 인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애중심주의가 야기하는 다양한 방식의 폭력을 인지하고 이를 타파해나가는 것은 이성애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강요되어 왔음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성애중심주의의 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긍정하고 다채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by_ 2대 총학생회 일상, 올림

학내 사건 해결의 구체적인 절차



1. 피해자가 학칙에 의거한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학내 성폭력 상담실과 총학생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피해자와 가해자의 소속이 다른 경우 각각의 단위에서 주체가 참여해야 함.
 -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외부 단위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야 함.
 -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신원보호와 주의가 필요하다.

2.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한 경우

- 과/반 학생회는 사건을 지원하고 사건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논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
- 비공식적인 방법으로서의 사건 처리를 피해자가 원할 경우
 - 상담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로 사건 종결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가해자가 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 사건은 상담일지에만 기록으로 남음
- 공식적인 방법으로서의 사건처리를 피해자가 원할 경우 혹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 교수, 교직원, 학생위원으로 구성된 성폭력 대책 위원회에 사건 회부
 - 각 사건에 따라 필요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짐

※ 학내의 성폭력 상담실은 대리 신고가 가능하며, 2차 가해에 대한 신고나 학생회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린 조치를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학내 기관을 통한 해결은 피해자를 신중하게 보호하고,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가해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법대 이야기

새내기 시절 나에게 유독 잘해주던 능구렁이 선배 한 명이 있었다.

3월~4월

그분: ○○아! 오빠한테 연락도 안하구~++

나: 앗... 죄송해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0=)

그분: 도대체 오빠랑 언제 밥 먹을까?

나: 네? 아무 때나... 괜찮아요

그분: 그럼 내일 먹자~+_+

시험기간

그분: ○○아~ 오빠가 도서관 자리 맡아놔어

나: 네? 아...네 감사합니다~(ㅠ_ㅠ)

시험 공부 끝나고 집에 가는길

그분: 오빠 오늘 친구 집에서 잘 건데 너네 동네에 있어+_+

나: 아..... 그렇군요~0~

그분: 가는 길에 같이 가자!<

내가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며 나무라면서 밥도 사주고, 시험기간에는 굳이 도서관 자리도 맡아주시고, 우연의 일치로 집에도 같이 가곤했던 그분. '선배'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잘 해 주는데, 거절을 하거나 살갑지 않게 대한다면 나는 그야말로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는 후배가 될 것이 뻔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선배는 하늘이었기에.

너랑 그다지 밥 먹기 싫어!

'도서관 자리 땀겨등?'

'왜 하필 그 친구집이니.....'

이런 나의 심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항상 표현할 수 없었다. 무서웠다. 그렇게 싫은 티를 내면 왠지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것만 같은 불안함이 가득했다.

몇 달 후... 나는 반에서 '나쁜X'이 되어 있었다. 실컷 오해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연애제의를 거절했다는 것이 나의 죄목이었다. 너무 힘들었다. 나는 오해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 사람의 능글맞으면서도 강압적인 선택권력에 주눅 들고 이끌려 다닌 상처밖에 없다. 그런데 또 이런 상처가 나에게 돌아오니, 그 당시 나의 이런 심정을 토로했다면, 나는 정말 얼굴에 첩판을 깔 뻥뻥한 아이라는 죄목이 하나 더 붙었을 것이다.

내 주변에서 보아온 '남자 선배'와 '여자 후배'의 관계는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다. 그 유명한 '오빠가~' 1인칭 화법으로 접근하고 귀찮게 구는 것은 남자 선배였지만, 욕을 먹는 것은 '계대로 처신 못한' 여자 후배다.

이렇듯 나에게 있어 '반'이라는 공간은 성별권력관계, 나이권력관계가 너무나도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는 공동체였다. 나의 꾀꾀할 수 있었던 새내기 시절도 이렇게 상처로 남아있는 이유 역시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사고들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반에 남았다. 그리고 부단히도 싸워왔다. 상처받는 또 다른 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지만 쉽지 않다. 늘 반박에 부딪히고 또 상처받기도 하면서 가끔 지치기도 한다.

"반성폭력 강의? 왜 나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취급하는 거야!?"

"자치규약? 왜 그렇게 갑갑하게 굴어요? 재미있게 놀면 그만이지."

이 바보들! ㅠ_ㅠ 반성폭력을 이야기 하고, 자치규약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공동체 깊숙이 박혀있는 남성 중심적인 권력관계가 누군가를 밀어내고 끌어내는 무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덧 새내기 맞이 시즌이다. 모두들 즐겁고 설레는 마음일 것 같은 이 시기! 하지만 나의 아픈 새내기 시절이 떠오르면서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다! 또 다시 이야기 해 나가겠다고, 무서워 아무 말 못했던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말 못하게 만든 그 학번권력, 여자가 똑바로 처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남성권력이 잘못이라고!

by_ 법대의 어느 학생

Illustrated by gwenda kador

사회학과 이야기 I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 새로 만날 사람들, 새로 만날 공간들이 기대됐습니다. 뭔가 지금껏 '소속' 되어있지만 했던 공동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신나는 '내' 공동체를 찾을 수 있다는 대학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만나 재미있게 지낼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반이라는 대학 공간에 첫 발을 내딛을 때부터 뼈저리게 느끼는 불편함이 들었습니다. 웬지 모르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 있었던 거죠.

이야, 대학가면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똑같구만, 여전히 유리닝이구만, 화장도 안하고
위위, 대학 갔다고 짧은 치마 또 사 입는거봐, 그러면 남자친구가 생기지?
여자가 늦게 까지 남아가지고 술 먹네, 너 고등학교 때 폼 놀았지?
넌 맨날 집에 일찍 가니까 속 깊은 이야기 할 수가 없어, 오빠랑 담에 술 한잔 해, 뼈지 말고

무엇이 '여대생다운' 것인지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헛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꾸미고 다니지만 말라고 하더니 또 안 꾸민다고 뒷말을 듣게 되는 거죠. 늦게까지 술 먹으면 집에 일찍 가라고 호의를 베푸는 것 같더니, 술자리에 늦게까지 없었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같은 공동체에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는 것과,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어느새 나는 이런저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저 '여학생 1인'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회학과에서는 수업이나 세미나들에서 여성주의 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사실 잘 몰랐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내 경험들이 가려지고 있다는 말들에서 너무 공감이 되고, 또 그것들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학생 선배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책도 읽으면서 하나 둘씩 내가 왜 불편했는지, 그리고 현재 남성중심적인 공동체라는 것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수록 내가 이 공동체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만 남았습니다. 이 공동체가 남성중심적이라는 말을 꺼내 볼 생각조차 못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수업이나 세미나에서는 여성주의 이론을 토론하고, 비판하는 글도 써내지만, 결코 이것이 일상적인 관계나 고민이 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수업에서, 세미나에서 이야기 했던 말들은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었지만, 정작 나와 맺고 있는 관계에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니다. 실제 공동체에서는 그런 여성주의적 이야기들이 잘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된거죠.

"물론, 오빠라는 단어가 페미니즘적으로다가 보면은 그다 좋은건 아니야. 그렇다고 꼭 선배라고 거리를 둘 필요도 없잖아? 난 그냥 니가 편한대로 불렀으면 좋겠다."

니가 편한대로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당연한 말이지만, 나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고민

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결국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나만' 그리고 '여성주의에 빠진 여학생 몇몇만' 불편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공동체는 내 공동체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유리닝을 입어도 예쁘게 입었어야 했던 그 순간부터 배제당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 자치규약과 같은 것들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불편함을 참아야하고 그 모든 고민들을 혼자 떠안아야 하는 여학생들에게도, 또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면서도 많은 것들을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치규약은 필요한거죠. 누군가의 불편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서로가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공동체의 약속으로 가져가는 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해져버린 지금의 과/반 공동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참아야만 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밝고 명랑한 공동체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모르게 소외감을 느껴야 했던 사람들도, 불편함을 경험하고도 말 못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당연한 것들로만 채워진 공간들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by 사회학과의 어느 학생

사회학과 이야기 II



대학을 가려거든 in 서울 하라
선생님 부모님도 말씀하셨지
어렵사리 들어온 연세대학교
넓디 넓은 캠퍼스 아름답구나
이토록 좋아 뵈는 이 학교에서
대학 공부 한다니 설레는구나
누구의 노래던가 그 땐 그랬지
정말로 옳다구나 그 땐 그랬지

온 사방서 수업을 듣고 땀기니
지쳐가는 이 내 몸 쉬고 싶구나
반방 동방 벤치에 찾아가지만
어쨌거나 젠더가 여성인지라
두 다리에 힘주고 오르려 앉아
다소곳이 있어야 자연스럽지
그것은 이 사회의 자연스러움
바지를 입었어도 나는 안 편해
적별남이 되겠다 말은 아녀요
근데도 왜 그리 뭐라 하나요
다리 조금 편하게 자리 잡으면
여자가 여자가 그 놈의 '여자'가
요상꾸리 눈초리 받기 싫어서
나는 이제 예쁘게 잘도 앉지요
이따금 교복 치마 체육복 바지
환상의 그 콧비가 생각나지만
요상꾸리 눈초리 받기 싫어서
나는 이제 예쁘게 잘도 앉지요

오늘부터 조금은 귀찮아지네
오늘부터 조금 더 불편해지네
허리 땡겨 배 아파 월경통 와도
반방 동방 벤치는 소용이 없어
월경통! 월경통! 나 월경통!이야
이런 말 외치는 여자 어색한가요
이 사회서 이런 말 부자연스럽
내 몸의 자연스런 월경, 월경통
부자연스러움으로 부정당하고
여서도 쉬쉬하래 저서도 쉬쉬하래
그러니까 아파도 갈 데가 없지
그래도 사람에게 죽으란 법 없다고
여학생 휴게실이 존재하지요
연희관 여휴에는 소파 2개 의자 몇 개
하지만 그 공간도 협소한지라
학기 중엔 언제나 만원인 상태
참으로 갈 데 없는 이 내 인생은
3년이 넘어가도 다름이 없네

가끔은 이 내 몸도 땀 흘리고파
펼쩍펼쩍 뛰면서 달음질하며
농구공과 두 팔도 휘휘 저으며
똑똑똑, 살아 있는 내 심장, 보소!
당신도 이렇게나 될 수 있구려
그 동안에 어찌나 심심했을까
미안함에 조금은 머쓱하지요
이 내 몸의 게으름 인정하지요

하지만 내 변명도 들어봐 줘요
언제나 남학우들 바글바글한
학교 내 농구코트 갈 수가 없어
간다고 하면야 갈 수가 있지
하지만 이상하게 내키지 않아
가기가 왜 이다지 뻔잖을까요
이런 맘 가지고 우에¹⁾ 하나요
내 몸을 자유롭게 우에 하나요

이제는 변화가 있을 때도 됐지요
이렇게나 드넓은 캠퍼스에서,
앞뒤좌우상하 3차원 공간에서,
너도 나도 이렇게 똑같이 사는데
곰작거리기조차 왜 이리 불편한지
이렇게나 드넓은 캠퍼스는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나요?
문득문득 요렇게 질문이 모락모락
나만 불편한가요 나만 궁금한가요
혹시라도 누군가 공감한다면
혼자서 정정공공 알지 말아요
그런 마음 여기도 오롯이²⁾있으니
함께 소리 내 보면 어떨는지요
우리의 소리가 공명하여서
명랑쾌활함 가득 흘러 넘치게.

by_ 사회학과 의 어느 학생



1) 우에 : '어미'의 방언
2) 오롯이 : 고요하고
완전히

문과대 이야기

너와 나의 '우리'를 기대하며



대학에 들어와서 참 신기한 것이 많았습니다. 반이라는 것이 있고, 선배들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이것저것 도와주려하고요, 새터 떠나기 전에 여성주의란 말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반은 FM같은 것도 없고, 여학우에게 술을 강권하지도 않아요!"라고 선배가 나와서 이야기할 때, "나는 술도 잘 먹고 목소리도 엄청 큰데?! 어쨌든 누군가를 소외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좋은 것인가 보다. 우리 반은 참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었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저마저도 반에 남기는 참 힘들다는 생각을 때 해 거듭하게 됩니다.

내규! 내규! 내규!!

OT자리에서 한 남자선배가 술집에 들어오며, "이 야! 이번 해에는 예쁜 애들이 좀 많다며?"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고학번 남자선배들이 일제히 "내규! 내규! 내규!!"라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선배, 내규가 뭐예요?"

"내규? 그건 하면 안 되는 걸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되는데요?"

"그냥 반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거지, 뭐."

그 때는 몰랐습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는 언어적 성폭력이라는 것요. 제대로 해설되지 않은 채 관습적으로만 내려온 내규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 금지의 어떤 것, 혹은 가끔 꼬투리 잡아서 친구들을 놀리는 것 정도로 희화화되기에 이른 것이지요.

페미니즘을 패션으로 걸치기

반에 애정을 갖고 생활하게 되면서, 자연히 많은 술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철저하게 반성폭력내규를 지켜온 선배들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는 것이었지요.

"너는 남자가 되서 이 정도 술도 못 먹냐.", "역시 여자는 짧은 치마지.", "선배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등등... 낯선 선배들의 모습에 남자 동기들도 점점 익숙해져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전 아닌 것 같은데... 분위기 깨는 것은 싫고... 앞으로 계속 볼 사람들인데... 하며 계속 넘어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 물어봤습니다.



"선배, 왜 따로 술자리에서 만날 때랑 반에서 만날 때랑 이렇게 다른거~?"

"나는 마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선 페미니스트거든!"

이런 것까지가 성폭력이겠어?

내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꼭 붙는 것. "우리 반은 이런 성폭력 사건은 없지만, 만일을 위해 하는 거예요!"라는 말. 그렇지만 사실 반에서는 많은 성폭력들이 지나가버린 겁니다. 술자리에서 은근슬쩍 신체접촉이나 언어적 성폭력이 이루어질 때 "뭐야!"라고 외친다면, "아, 미안! 왜 그렇게 민감하게 그래."라며 넘어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대부분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간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지요. 그저 묻혀버린 채 지나가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상처받은 채 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에 남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기적으로 반을 떠나는 사람들 대신 반을 위해 남은 거야!"라며 큰소리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저 또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반엔 여자동기들이 남지 않는 거야. 힘들어 죽겠네."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던 적도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반으로...

공동체들은 파편화된 대학인들의 삶을 묶어내며, 학우들의 생활과 권리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반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공동체지요. 스스로 일상 속 작은 축제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그렇다면 반에서의 생활은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행사 때는 반에 있을 수 있지만, 과방에는 가지 못하는 여학우들이 많다면, 반성폭력내부규약은 있지만 실제 성폭력 사건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면... 진정 여/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로서 설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항상 공동체가 어려워졌다, 위기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항상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술자리, FM, 과방문화 등 많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부분이 알게 되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것과 내 삶 속에 실천해내는 일이 너무나 다른 차원의 것임을 새삼 깨닫곤 합니다.

진정 우리의 공동체를 고민한다면, 튼튼하게 하려 한다면, 반에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열어놓고 일상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by_ 문과대 지인

이과대 이야기

나는 아직도 불편해 ☹



(이렇게 시작하긴 싫지만) 대학에 입학했을 때 나는 술자리에서 FM이나 러브샷을 적당히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한두 번쯤 예의상 핑거주다가 결국 멋지게 해내는 새내기였다. 그것들을 해내지 않으면 술자리의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고, 웬지 다른 아이들보다도 뒤처지는 인상을 남길 것 같은 두려움에서 하게 된 그런 행동들은 차츰 나에게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즐거운 술자리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러다가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FM이나 러브샷 혹은 술자리 자체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내가 처음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이 단순히 부끄러움이 아니라 불편함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 어찌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은 불편한 것이 맞는 것 같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굳이 부끄러운 또한 불편한 행동을 해야 할까.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특히나 여학생으로써 개인생활공간 안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 여성의 외모나 체형을 소재로 그것들을 희화화하는 등의 농담을 하는 것, MT나 많은 과/반 행사에서 여/남이 할 일을 규정 짓고 성별분업을 하는 것,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들에 대한 농담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것 등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은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풀어내는 건 너무나 어렵다. 내가 겪은 불편함들에 대해서 털어놓을 때마다 그 불편함들이 내 개인적인 예민함이나 여성들이 겪는 피해의식 때문에 생긴 것으로 치부되어버리는 것이 건디기 힘들다. 개인적인 고민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그렇게 별 것 아닌 것으로 전락되어버려도 괜찮은 것일까? 여학생들의 고민이 개인적이고 예민한 것으로 치부되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여학생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였다 하면 갖게되는 술자리, FM/용원

등의 남성성 짙은 행동을 하면서 친해질 수 밖에 없는 남성중심적 공동체 안에서 여학생들은 외모를 평가받는 등 '주체'가 되지 못하고 '대상'으로 전락되어버린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여학생들이 느끼는 불편함들이나 고민거리에 대해서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여학생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면 여학생들(단 한명이라도)이 풀어내는 불편함이나 이야기들에 대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한다.

이과대에서는 여성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거의 공유되고 있지 않다. 여성주의 소모임도 존재하지 않고, 여학생들은 다수인 남학생들의 생활에 순응하며 남학생들과의 타협점을 찾고, 자신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 그대로 자신이 "싸나이"가 되어 자신의 여성성을 숨겨둔 채 남성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런 행동들은 남학생들과의 관계맺음은 한층 수월해질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자신조차도 부정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과대 내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아쉬움은 둘째치더라도 내가 여성주의를 풀어낼 때 가장 아쉬운 점은 많은 이과대 학우들이 여성주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대화에 임한다는 점이다. 정말 많은 학우들이 총여학생회나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성주의는 여성우월주의다' 혹은 '여성주의는 피해의식이 많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여성주의에 대한 (영통한)생각들도 그런 편견 때문에 더 고착화되고 한쪽에만 치우친 고정관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편견들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많은 부분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여성주의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네가 여성주의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물어보는 건데.) 이런 행동들은 뭐가 잘 못된 거야?"라는 질문을 듣거나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 불편한 행동들을 인식하고 문제제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나 행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 명확하게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 짚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아 너무나 아쉽다. 하지만 그저 아쉬워하면서 끝내기 보다는 주위에서 함께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 다시 사람들에게 쉽게, 또한 명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언어를 고민하면서 질문을 받았던/문제제기를 했었던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답답함을 많이 풀어냈었다.

여성주의적 고민이나 불편함은 자기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고민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민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을 찾고 끊임없이 그 고민들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때에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이과대내에도 속 시원히 여성주의적 고민/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길 바라며! 파이팅 :)

by_ 이과대 어느 학생



생과대 이야기

반짝반짝 빛나는
생과대 소녀들이여,
우리 Sisterhood로
연대해보아요



www.kkoyan.com

생과대, 생활과학대, 이름만 들어도 웬지 상큼달콤한 과일같은 나의 생과대.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생과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종종 우리 생과대가 연세대의 제주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거예요. 호호 왜냐고요? 제주도처럼 돌, 바람, 여인이 많기 때문이지요. 설명을 드리자면, 서문을 제외한 연세대의 "문"에서 삼성관까지 한번 걸어와 보신 분은 돌이 왜 많다하는지 잘 아실 것이고, 생과대에 바람이 많다 함은 고지대 외곽에 위치한 삼성관의 위치상 우리의 겨울이 참으로 매섭기 때문 이랍니다. 마지막, 생과대에는 정말 여학우가 많답니다. 마치 공대에 남학우들이 많은 것처럼요.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는 생과대에 개설된 학과 특성상 구 가정대의 냄새가 물씬 풍기기 때문인 듯 싶네요. 여남비율이 대략 7:3이라하니 가히 여학우 별천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소녀들로 가득 찬 생과대. 그런데 이 여자분들, 수업시간 끝난 답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와글와글 복잡거리던 우리의 삼B111은 잠시되면 행~해져 희색빛만 남지요. 도대체 다들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것 일까요. 내가 1년동안 지켜본 바로는 생과대 소녀들은 그냥 끼리끼리 작은 소그룹을 형성해 어울려 어디론가 가버리거나, (중앙)동아리로 흩어져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저는 사실 처음에 생과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생과대는 작은 규모의 아담사이즈 대학이잖아요. 게다가 1학년들은 전공을 받기 위한 수업을 거의 삼B111에서 해결하고 하나씩 서로 얼굴 보는 시간도 많고 친해지기 좋은 조건이라고 보았지요. 그라피예(매점)도 조그맣고 YCV, 과방, 복사실 모두 삼B111이 있는 지하 한층에 모두 한복도에 몰려있지요. 그래서 마치 고등학교 때처럼 끈끈하고 살가운 여학우친구들을 대학 와서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요.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도 했구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외부 조건과는 별개로 생과대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어온 것 같아요. 유난히 중앙동아리에 동지를 트는 사람이 많구요. 오펜나 과 개강파티에도 소극적이고, 아카라카때나 대동제때도 학생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생과대 내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 같아요. 내친김에 더 솔직히 말해볼까요. 난 우리 여학우끼리 외모 경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화장해야 할것만 같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많이 고민되고 신경쓰여요. 루키즘(Lookism)이라고 해나? 알게 모르게 서로들 겉모습으로 경쟁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많이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많은 학우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응?? 가만가만. 왜?? 여자들이 많은 게 뭐가 어때서? 여자들은 모이면 원래 서로 경쟁해야 하는건가요? 왜 뽀뽀히 흠어져야 하는거예요? 서로서로 끈끈히 뭉칠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내가 가장 힘든 시간 옆에 있어주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애인에게 실연당하고 고통스러웠을때 내 곁에 앉아 손을 잡아준 사람은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저는 우리 여학우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학우들이라는 이름으로 연세대학교에서 활동하면서 저는 종종 여성을 뭉개고 억누르려 하는 남성중심적인 학내 분위기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이 여학우들이 많이 있는 생과대에서는 어쩐지 여자가 여자를 외면하는 듯한, 여자끼리의 경쟁을 보는 것 같아 속이 상해요. 즐겁고 따뜻한 관계맺음을 지향하지만 그것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해 시도조차도 꺼려지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생과대 학우들이 외모로, 몸매로, 보이는 것으로 나름의 권력을 형성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주류에 소외되고 배제되는 학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예요. 생과대에서 자주 나오는 끼리끼리 논다는 말도, 중동으로 다 빠진다는 말도, 그리고 소속감이 없다는 말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여자들은 원래 그래" 라는

말로 매도하기 전에 뿌리깊은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면상, 또 저의 부족으로 더 깊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만 여러가지 기제가 복합적으로 얹혀 나타나 보이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생과대 여학우로서 참 안타깝고 속이 상할 뿐이예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여자들은 원래 그래" 라는 말로 매도하기 전에 뿌리깊은 생과대의 구조의 문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과대처럼 여학우가 많다고 해서 성평등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예요. 결국 생과대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남학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과대의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그리고 과회장, 부회장 거의 남학우들이 차지하고 있지요. 생과대 여학우여러분, 여차피 활발하게 반, 동아리, 과 활동하는 것은 남학우라고 다들 암암리에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왜? 라는 질문을 던져 보셨나요. 이렇게, 여초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과반활동에 남학생들이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주도해간다는 것을 생각하였을 때 많은 여학생들이 생과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서로 외모 등으로 견제하며 스트레스 받아하는 것도 이러한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가지 뿌리깊은 기제가 복합적으로 얹혀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생과대 여학우로서 참 안타깝고 속이 상할 뿐이예요. 다수임에도, 여학우들이 많이 남지 못하는, 여학우들이 겹도는, 결국 남성중심적인 생과대의 상황 같이 고민해보는 것은 어때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이제 Sisterhood를 발취해보아요. 생과대의 고질병을 자매애로 타파해보는 거예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며 우리끼리의 싸움과 경쟁을 부추기는 가부장적 사회의 무시무시한 사회화와 음모의 족쇄에서 벗어나 여성이라는 몸을 가진 축복받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서로 축하하면서요. 우리 서로를 향한 경쟁심에 불타서 "재 처럼(보다) 이빠(잘입어)보일거야" 하는 스트레스로 나를 구속하지는 말아요.

by_ 생과대 치치

성폭력 피해 대처법

과, 반,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 중에 불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배, 동기들과 함께 있는 자리이고 다들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괜히 내가 분위기를 깨는 것은 아닐까?', '내가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슬며시 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느낀 불쾌감과 불편함, 그리고 이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불쾌한 상황에 대한 의사표현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마음이 찝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사건에 대한 지원, 상담을 받고 싶다면 학내 성폭력상담실이나 총여학생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총여학생회 (학생회관 3층 왼쪽 끝)
woolim@yonsei.ac.kr / 02) 2123-3645

■ 교내 성폭력상담실 (학생회관 2층 오른쪽 끝)
helper@yonsei.ac.kr / 02) 2123-2118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쪽지를 보내는 등의 사이버 성폭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을 신고하고 싶다면 <사이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http://www.bj.or.kr> 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성폭력 발생시간과 해당 URL 및 가해자 ID, 캡처 화면이나 갈무리한 채팅 내용 등을 가지고서 조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방문, 게시판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성폭력(강간, 강간치상)을 당했을 때

물리적인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당황함과 불쾌함에 사위를 하거나 증거물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이 순간이 너무 괴롭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눈앞에 사라지길 바라더라도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증거 및 증언 확보

- 사건 직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곧바로 병원이나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발견되는 피나 정액을 증거로 확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진단서도 꼭 끊어두세요.
-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가해가 있었던 현장은 그대로 보존하고, 가해자가 떨어뜨린 물건이 있다면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종이가방이나 지퍼백에 넣어둡니다.

2.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원하신다면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연락하세요.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02) 338-5801~2 / ksvrc@sisters.or.kr
- 한국여성민우회 <http://www.womenlink.or.kr>
02) 739-8858 / minwoo@womenlink.or.kr
- 여자경찰관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술 시에는 기록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성폭력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여연자연은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입니다.
여연자연은 학내 여성문제를 고민하던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화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를 이어 2005년 겨울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여연자연에서는 다양한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고민들을 나누고,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합니다.
여연자연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학내행사를 성평등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를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실천할지를 고민해왔습니다.
주로 OT와 새타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성평등자치규약을 풀이내며 열심히 반성폭력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대동제 장터 기간에는 장터에서의 성별분업이나 성희롱·성폭력방지를 위한
고민을 나누고 응원문화의 남성중심성에 문제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하신 분들,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들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이야기가 많아요.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당신, 함께해요♡

싸이월드커뮤니티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
<http://yeoyeon.cyworld.com>

